

## 中高等學校 讀書現場教育 方法과 學生들의 讀書生活化

金 承 煥  
東星中高等學校司書教師

### 1. 머리말

독서를 통한 경험으로 교양과 지식을 얻어 인격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서를 모든 국민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말로만 독서가 어떻다고 이야기만 할뿐 생활화하는 구체적인 방법도 없으며 실천해온 것도 없다. 독서의 생활화! 이것이 곧 그 나라의 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제1국력이 경제력이라면 제2국력은 국민들의 생활화된 독서력일 것이다. 오늘날 수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지식,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관계, 점점 메달라가는 인간관계, 더욱더 발달시켜야하는 과학문명과 자연관계 등 이 속에서 독서하지 않는 국민이 산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번영을 기대할 수 있고 행복이 약속된 나라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지금은 어떻다고 하더라도 먼 후손들이라도 독서를 통하여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나라라고 약속할 수 있게 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독서는 습관화가 되어야 항상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읽고 싶을 때를 기다려서는 책을 읽을 수 없다. 그래서 독서는 어려운 것이지 쉬운 것이 아니다. 독서의 생활화는 하나의 습관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서부터 일찍 습관화해야 하므로 학교 교육에서 독서의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먼 훗날의 행복한 나라를 약속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교육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한 교육은 실시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의 독서라는 개념과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서 온 것이지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야 독서가 우리 인간의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독서를 연구하는 기구가 오늘날 짧은 역사를 가지고도 세계 곳곳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본인이 생각할 때도 학교교육 과정에서 독서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다음 문제들을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까지 직접 독서교육의 현장 실습에서 얻은 것이므로 중고등학교에서 직접 독서교육을 실시하려는 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리라 믿습니다.

### 2. 讀書教育 方法

독서라고 하면은 학교라는 영역에서는 도서관만을 중심으로하여 지금까지 의존해 오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독서의 전부라고 생각해 왔다. 물론 앞으로 도서관은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독서 환경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필요한 한 가지는 독서교육을 지도할 지도자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현장교육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는 중고등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실천 가능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 조건을 통한 독서교육 실천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다음에 말하는 방법의 실천이 없다면 어떠한 독서교육이고 지금까지 실시해온 독서교육처럼 이론에서 끝나버려 학생들에게 독서의 생활화를 기대할 수 없는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다.

#### 가. 精讀圖書 選定과 讀書計劃

학교에서든지 일반사회에서든지 독서교육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정독도서를 각 학년별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책을 읽도록 지도해야 한다.

정독도서를 다른말로 한다면 「필독도서」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정독도서를 선정할 때는 선정하는 지도자가 주관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가장 객관적이고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수준을 절대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내용도 편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너무나 어려워서 처음부터 읽으려 할 때 흥미를 잃어버리

거나 또는 자신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 너무나 쉬운 작품을 선정하여 권위가 없어서도 안 된다. 특히 주의할 것은 주제를 다양하게 하여 정독도서만이 아니라 읽었을 때 어느정도 책을 읽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정독도서의 선정없이 독서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에게 독서실험을 하기가 곤란하고 결과도 측정하기 힘들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이 자기자신의 독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교육을 받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아 버린다. 그러므로 학년별로 단계적인 정독도서를 선정해 놓는다면 독서교육을 실천하는데 학생과 지도자가 같이 발을 맞추어 효과높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장서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봉사하는데도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장서 구입에도 경제적으로 할 수 있어서 정독도서의 선정은 필요하다. 독서 문제야 지도에 있어서도 정독도서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독서상담에도 아주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정독도서 목록없이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올바른 독서 지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몇가지 주의할점은 학생들이 선정된 정독도서 목록에 있는 책만 읽고나서 자신이 읽어야 할 책은 다 읽었다고 생각하게 해서는 안된다. 정독도서 목록은 오직 최소한 이 정도는 읽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정독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전개독서를 하도록 해야 한다. 주제별로 찾아읽기, 작가별로 찾아읽기, 나라별로 찾아읽기 등으로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이 약간 딱딱하고 어려운 낱말이 나온다고 해서 또 어렵다고 해서 정독도서 읽는 것을 피하고 다른 책만 읽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는 설명과 지도가 필요하다.

우리학교의 정독도서를 간단히 소개하면은 중학교는 각 학년별로 21주제이며 고등학교는 각 학년별로 23주제이다.

나. 讀書教育 實施와 指導計劃

독서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하려고 할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도교사와 독서시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법에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독서교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뜻있는 교사가 실시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민학교는 담임에 의해서 실시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도 그나름대로 실시할 수 있지만 중고등학교에서 독서교육을 실시하려면은 꼭 힘든 문제다.

그런데 금년 신학기부터 서술시에 한해서는 교육감령에 의하여 중고등학교 독서시간을 넣어서 실시하라

고 하여 지금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로 등장했던 독서시간이 해결된 셈이다. 또 다른 도에서도 교육감령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시원한 문제해결은 아니었다. 그러나 독서교육지도 시간 문제가 이렇게라도 해결되고 보니까 지도교사가 더 큰 문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국어교사가 맡아 지도하든지 또는 사서교사가 지도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업무량 때문에 독서교육 시간을(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교재의 빈곤) 어떻게 감당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과가 좋은 독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재를 많이 연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없이는 국어교사나 사서교사가 우리나라 독서교육의 사명을 짊어지고 삼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은 볼 수 밖에 없다. 하여튼 독서교육 지도시간이 1주 1시간이지만 이제라도 지도하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니 다행한 일이며 이러한 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될 때가 가까워지지 않나 생각된다.

본인이 지금까지 독서교육을 실시해 온 경험에 의해 보면은 중고등학교 전학년에서 실시하는 것보다는 중학교에서는 1·2학년에서만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에서만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중고 6년 동안에 3년간 1주1시간씩 독서교육을 받도록 시간을 배정하고 교육내용을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 讀書現場教育과 指導內容

독서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내용이 중심이 되는 교재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독서교육이 교육과정에도 들어있지 않는데 교과서가 있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중고등학생들에게 직접 필요한 교육내용이 정리된 자료도 없다. 그래서 독서교육지도 시간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자료가 없어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해 왔지만 독서교육 교과과정은 중고 6년 과정에서 3개년만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았다. 교과내용의 중요한 요점만 간단히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전과정을 통한 중점에도 내용(3년과정 공통문제)
  - ① 정독도서 선정의 의미와 해설을 새학년 때마다 한다.
  - ② 독후감 쓰는 것을 학년때마다 몇편씩 쓰도록 지도한다.
  - ③ 매학년마다 독서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한다.
  - ④ 독서력을 발달시키는 과학적인 방법을 매 학년마다 지도한다.
  - ⑤ 매학년 신학기와 끝날 때도 독서실태를 통계내서 발표해 준다.

(2) 학년별 중점지도 내용

가) 중학교 1학년 때

- ① 중학생으로서의 독서생활 준비와 계획
- ②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의 독서생활 지도계획
- ③ 독서력 발달방법은 기본본문 정도
- ④ 독서발표나 독후감상문 발표
- ⑤ 독후감 쓰기는 년 30편 이상 쓰기(중요내용 써오기 정도)
- ⑥ 기타

나) 중학교 2학년 때

- ① 1학년 때를 반성시켜 절절한 독서생활 계획(학기 초)
- ② 여름방학 겨울방학 숙제(I·F 자료수집)
- ③ 독서력 발달 방법은 이론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시킨다.
- ④ 독서발표나 독서토론 실시
- ⑤ 독후감 쓰기는 년 30편 이상 쓰기(독후감 15편, 배용 써오기 15편)
- ⑥ 3학년과 고등학교 때의 독서생활 지도와 정독도서 소개
- ⑦ 기타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 ① 중학교 때의 독서생활을 반성시켜 고등학교 때는 더 진전한 독서생활 유도
- ② 고등학교에서는 독서를 통하여 투철한 자기철학을 갖도록 한다.
- ③ 독서력발달 방법은 후배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독서발표는 독서그룹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법
- ⑤ 독후감 쓰기는 년 12편(독후감다운 작품으로)
- ⑥ 평생 교육에 대한 문제
- ⑦ 고2·3학년 때의 독서생활과 정독도서 소개
- ⑧ 기타

이상과 같이 독서교육 교과과정을 간단히 소개했는데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실시하면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독서를 하여 생활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讀書教育과 學生들의 讀書態度

우리나라 학생들이 책을 읽는 능력을 측정하는 표준 방법이 없어서 민음만한 학생들의 독서능력을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 동안 본인이 독서력을 측정해본 방법은 얼마나 빨리 읽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와 기억을 하고 있나를 남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해 본적이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은 3년간을 계속해 보았는데 3년 동안에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본인이 조사한 우리나라 중

학생들이 책을 읽는 능력은 1분에 평균 약 520자 정도이다. 여기서 조사하는데 사용한 내용은 가벼운 국내 소설인데 개인차가 너무나 커서 100자에서 1,600자까지 있었다. 여기서는 독서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고등학생들에게도 그들이 읽어야 할 수준의 책으로 조사했을 때에는 중학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 1> 독서교육후의 독서력발달비교

반별	구분	교육	최고읽은 글자수	최저읽은 글자수	반 평균
		전	후	후	
A 반 (실시한반)	전		1,067	156	496
	후		1,932	206	780
B 반 (실시안한반)	전		1,017	125	508
	후		1,390	166	512

※ 숫자는 1분에 읽은 글자수(평균)

그리고 <표-1>에서 A반은 독서교육을 1년간 꾸준히 실시한 반의 결과이고 B반은 독서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반의 결과이다. A반은 독서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1분간에 읽는 글자수를 측정해 보았더니 제일 많이 읽은 학생이 1,067자를 읽고 있었는데 독서교육을 실시한 후 측정해 보았더니 80%를 넘는 1,932자로 늘었고 제일 적게 읽던 학생은 156자에서 206자를 읽어 30%의 발달을 보았다, 반평균도 80%의 발달을 보았는데 독서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반은 거의 발달하지 못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실시하여 독서능력을 향상시켜 직접 독서생활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외에도 도서관의 이용률이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독서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이 독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하여 독서하는 태도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표 2> 속독지도와 독서력 발달 비교

구분	최고읽은 글자수	최저읽은 글자수	반 평균	이해(%)	비 고
실시전	930	176	525	55.1%	
실시후	2,009	650	1,155	64.4%	

※ 숫자는 1분에 읽은 글자수(평균)

<표-2>는 어느 한 반을 특별히 1개월간 속독지도한 결과인데 이때 사용한 교재는 한국행동과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독서력 개발 프로그램」이란 교재를 가지고 실시한 결과이다. 1개월전과 후의 독서력은 아주 많이 발달하여 100% 발달된 독서력을 보여주는데 이해면에서는 20%의 발달밖에 나타나지 않아 실험결과 빨리 읽으면 빨리 읽는 것만큼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독서능력은 그렇게 바라는 것만큼 발달되었다고 볼 수

가 없다. 훈련과 실험에 응한 학생들도 빠리는 읽어지는데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훈련이 끝나고 2개월 후에 독서능력을 측정했을 때에도 1분에 800자 정도로 떨어졌다. 이것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습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1개월간의 훈련이 끝나니까 다 끝마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서교육은 학교에서 생각날 때 일시적으로 하고 겁낼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실시하여야 학생들에게 독서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속독지도만 가지고 몇 개월간 지도해야 할 그러한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서연구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여 지도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

#### 4. 提 言

독서교육은 중고등학교에서 다른 교과교육과정에서처럼 계획되고 교실에서 실천되어야 학생들의 독서생활화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독서교육을 실시했을 때 학생들의 독서태도는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생활계획에도 파고 들어가 독서의

생활화가 되어가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있다.

중고등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이러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때 항상 독서문제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독서의 생활화도 더 빨라진다. 앞에서 말한 독서교육방법을 계속 실시한 결과 독서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와 비교해 볼 때 그 학교 도서관을 찾아가 보면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 대출에서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독서교육은 1년이나 2년후에 또한 금방 커다랗게 나타나는 빛나는 교육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의 사회는 이보다 더 금방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는 독서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사업에만 열중하는 것 같다. 학생들이 한권 두번 읽은 그 보이지 않는 그 결과는 먼 훗날 어른이 되어 이들이 사회의 한 일원이 되었을 때 역시 보이지 않게 국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문교부 당국에서도 앞으로의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을 좀더 적극적으로 정책화하여 독서하는 국민을 기르는데 많은 독서 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78年度 會費를 조속히 納付하여 주시면 感謝하겠습니다.

會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協助와 聲援에 대하여 深甚한 感謝를 드립니다.

協會는 會員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後援과 積極的인 參與로써 꾸준히 發展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自立財政의 確保라는 基本的인 問題가 아직껏 解決되지 않은 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보다 能動的이고 활발한 事業의 展開와 會員을 위한 權益擁護의 土錢을 積極 마련치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實情에 놓여있습니다.

이와 같은 協會의 어려움에 대하여서는 너나 할것 없이 會員 모두가 몹시 걱정해 오고 있으며 그 打開策에 대하여 論議되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根本政策을 마련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問題와 關聯하여 現在協會의 唯一한 財源으로 되어 있는 會員負擔金인 會費를 引上하는 問題가 77年 定期總會席上에서 具體的으로 舉論되어 78年度부터 引上키로 決議되었습니다.

協會가 제 機能을 發揮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于先 最少의 財政自立만이라도 確保되어야 하겠습니까. 團體會員이나 個人會員 여러분들께서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으나 協會의 財政事性을 깊이 理解하시어 會費를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團體會費 : A	급	年	70,000원
	B	급	50,000원
	C	급	35,000원
	D	급	10,000원
	E	급	5,000원

個人會費 : 年 2,000원